



보도시점 2024. 3. 28.(목) 15:00 배포 2024. 3. 28.(목)

##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‘행동하는 정부’ 구현에 18개 외청도 적극 협업 -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최 -

- 정부는 3.28(목)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이번 회의에는 18개 외청장, 기재부, 교육부, 인사혁신처 등이 참석하였다.

### < 제2차 외청장 회의 개요 >

- 일 시 : '24.3.28(목) 14:00~15:00
- 장 소 :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
- 참 석 : 18개 외청, 기재부, 교육부, 인사혁신처 등
- 안 건 : 「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」, 「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」 등

-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것으로,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과제에 대해 쏠 외청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개최하였다.
- 특히,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‘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’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공유하였으며,
- 정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‘늘봄학교 운영 지원방안’과 부·처·청 간의 칸막이 해소를 위한 ‘전략적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’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, 외청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.
-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정책은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”고 하며, “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점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외청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- 이와 함께 “외청장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각자 맡고 계신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, 즉시 바로 잡아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“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국정 주요 과제에 외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유하고 참여해야 한다”고 강조하며,
  - “대통령과 국무총리, 국무위원들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로 참여하며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는 만큼 외청들도 청장 개인 차원의 재능기부와 기관 차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발굴·동참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상철 (044-200-2048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052)

